

탐방

고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건강백세의 첫걸음 “早期진단”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각종질환의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종합건강진단센터를 설립, 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정밀한 검사로 정평이 나있는 고려병원 종합健診센터를 찾아가 보았다.

서울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고려병원 종합건강진단 센터는 인근지역의 진료 뿐 아니라 뛰어난 의료수준과 쾌적한 진료 환경을 갖춰 모든 의료이용자들에게 <사랑받는> 健診센터로 알려져 있다.

「저희 健診 센터는 최신의료 기기와 선진의료기술에 의한 전문 진단시스템을 구비하여 수진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체크, 각종 질병을 사전에 방지하는 早期健診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장 張光燮박사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각종 성인병에 대한 예방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습관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고 건강 백세의 첫걸음은 조기진단임을 분명히 했다.

張光燮센터장은 검진을 받는 사람이 하루평균 60여명 정도인데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

약후 2개월정도 기다려야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진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20여종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고려병원 健診센터의 주요 검사장비로는 초음파검사를 꼽을 수 있는데 검사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불편과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 내에 간장, 신장, 췌장 담낭, 낭종 등의 질환을 검진, 지금까지 곤란했던 간경변증, 간암, 담석증, 총담관 확장 등의 질환을 손쉽게 발견할



張光燮센터장

전문시스템운영...정밀한 健診자랑 3시간 정도로 20여종 검사받아

받기전 수진자의 가족력, 과거력 등 개인의 특수성을 알아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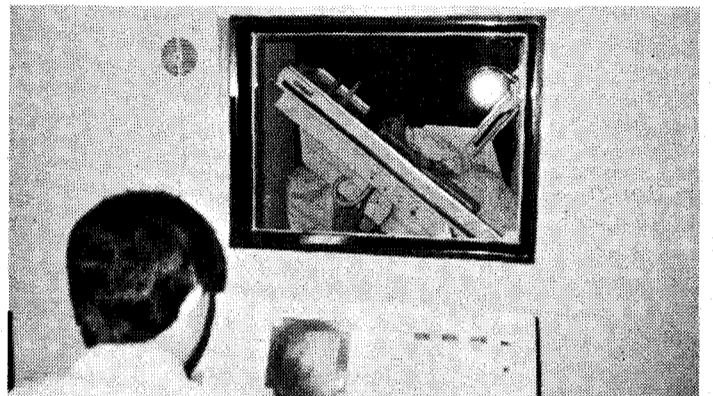
수 있다고 한다. 또 위장·흉부 X선촬영으로 식도, 위, 십이지장, 협착, 궤양, 폐결핵, 폐암, 기관지확장증을 검진할 수 있다고 한다.

고려병원 健診센터의 진료과정은 3단계 인데 1단계는 검사

각각의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 등의 이상증세를 묻는 문진표를 작성토록한다. 2단계는 문진표에 근거한 본격적인 검사를 시행하는데 혈액·분·뇨검사, 혈압측정, 심전도, 안과·청력검사, 유방X선, 부인과 등 20종류를 검사한다.

3단계는 진단결과에 따른 영양양도를 수행한다. 이상질환으로 판명될시에는 고려병원 전문의에 연결, 2차 정밀검진 등 진료의뢰를 하고있다.

張光燮센터장은 질병구조 패턴이 점차 서구화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성인병의 주종을 이루는 순환기계통 질환이 급증, 이에대한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동센터의 9년도 건강결과통계를 보면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질환 등의 이상소견자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순환기계통에서도 고혈압이 남자



초음파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에게 아무런 불편과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짧은 시간 내에 간장·신장, 췌장등을 검진한다.

69% 여자 61%, 심장요정검이 남녀 30%로 타질환에 비해 월등히 높고 신진대사계에서는 중성지방과다가 남자 54.8% 여자 33%, 고지혈증은 남자 54.8% 여자 33%로 나타났다.

張光燮센터장은 성인병 예방은 1차적으로 자기몸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고, 최소한 1년에 한번씩은 종합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또 국내 健診인력과 관련, 張센터장은 <수적으로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하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주민 손쉽게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합검진비는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아직도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돼 이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려병원 종합健診센터에 들어서면 병원의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가정의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는 검사받는 사람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가볍게 진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측의 노력이 엮여있다.

光선으로 동맥경화 치료

日통산성...혈관내삽입해 레이저光 조사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이 최대의 특징으로 이에 의해 치료부위를 관찰하면서 레이저광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菊地교수에 의하면 관상동맥의 폐색·협착성질환의 치료법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혈관내시술(CABG)은 흉개수술이 필요하고 환자의 부담이 크며 또한 카테타로 약제를 주입해 혈전을 용해하는 PTCR은 혈전형성초기 이외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발룬(풍선)카테타를 동맥내에 넣어 동맥경화로 좁아진 부분을 확장하는 PTCA도 재발률이 약 30%나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근 주목을 모으고 있는 것이 풍선으로 혈관을 넓혀 레이저광으로 폐색·협착된 동맥경화병변을 열로 녹여내는 레이저혈관형성술이다. 기존의 동맥내레이저수술장치는 여러 개의 섬유를 한달로 묶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카테타선단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구부러진 관상동맥내에서는 안전하게 충분히 병변을 증산시킬 수가 없다.

방위대의에서 동물실험중인 동맥내레이저수술장치는 레이저발진장치, 제어장치 및 모니터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저광원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의용레이저인 파장 약 5마이크론의 일산화탄소레이저(출력 1.5와트)가 사용되고 있다.

섬유에는 유연성이 뛰어난 직경 2백20마이크론의 적외유리섬유가 사용되고 있고 수술용카테타의 외경은 1.67mm로 레이저導光用섬유외에 혈관내시경용광원, 생리식염수공급관 등이 수용되어 있다.

菊地교수는 “이제까지 개를 이용해 약 10에 정도 실험했으나 결과는 양호하다. 앞으로 더욱 실험해서 임상에서 응용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

고령자사회를 맞아 관상동맥경화를 주요인으로 하는 심근경색 등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광섬유를 혈관내에 삽입, 레이저광을 조사해 동맥경화병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동맥내레이저수술장치」가 등장했다.

이 장치는 日本 통산성공업 기술원이 개발한 것으로 방위과학기술대학에 설치해 의용전자공학과의 菊地眞교수팀이 동물 실험중이다.

중래의 장치와는 달리 광섬유를 내장한 카테타에 혈관내 시기능과 선단부를 구부러거나

임신中 高血圧 칼슘섭취 “効果”

약물보다 乳제품등 식품이 좋아

태아와 모체를 위협하는 임신중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하는 매일 1천5백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미국의 임신중 여성 10명중 1명꼴로 발생하는 임신중 고혈압은 대체로 임신말기에 뚜렷이 나타나는데 이를 방지하면 조산 위험이 커지며 유아는 물론 모체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최근호 美월간지 「글래머」는 밝혔다.

임신부 3백명에게 매일 2천 kg의 칼슘을 투여한 결과 출산까지 단지 9.8%만이 고혈압 증세를 보였다.

반면 별도로 칼슘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3백명 그룹에서는 14.8%나 고혈압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임신중 고혈압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대개 침대에서의 절대안정, 약물투여 또는 조기출산 유도로 대처하고 있다.

오레건 보건대학의 데이빗 맥캐런 교수는 「고혈압에 따른 증세약화에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며 「조산으로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서 양육하는 비용보다 출산전에 미리 적절히 약물치료하는 방법이 훨씬 부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칼슘 錠劑(알약)를 과다복용하면 때로는 변비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때문에 의사들은 여성들에게 저지방 乳제품이나 브로콜리등 야채식품을 통해 필요량의 칼슘을 섭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알약을 먹을 경우에도 하루 1천mg짜리 한알보다 5mg백짜리 두알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편이 좋다.

칼슘은 임신부의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태아의 뼈와 신경계통을 균형 있게 발달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이다.

탈모예방·발모촉진 불두민 中外製藥